

## 大學教育協議會

# —創設과 새해의 構想—



張 仁 淑  
(事務總長)

### I. 協議會創設의 意義

大學教育協議會가 發足한지 9個月, 아직 新生兒의 知覺에 未及한 것도 없는 狀態에서 해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試圖되는 大學間 協議機構요, 自律調整機關이라 그 具體的인 任務와 機能이 무엇이며 어떻게 組織되고 運營되어야 하는 것인지 未明하기 그지 없었습니다마는 그동안 會員인 總·學長님들과 여러 大學의 重鎮 教授님들이 積極的으로 參與하여 指導 助言을 주신 덕분에 이제 그나마 平面的인 輪廓만이라도 그려낼 수 있게 된 것은 多幸스럽고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大學發祥의 一般的 圖式에 의하면 富의 蓄積과 教育받은 者에 대한 經濟·社會文化的 需要의 發生을 前提條件으로 삼는다 할 것입니다마는 우리나라의 大學, 現代的 意味의 大學들만은 이러한 條件의 成就를 기다리지 않고, 어찌던 早産兒처럼 불쑥 태어나기 시작했다 해도 過言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大學의 運營은 收益者 負擔의 原則에만 依存해야 했고 施設投資에 비해 學生數 規模가 클수록 發展性이 큰 大學이 된다는 論理가 成立되는가 하면 大學教育의 結果, 즉 卒業者의 知識은 大學 밖 社會構造 속에 圓滑히 吸收되지 못하여 결국 社會一般의 觀念 속에 大學教育浪

費論이 도사리기 시작했고 나아가 한때 大學無用論까지 擡頭되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도 事實입니다.

一般의 觀念이 이러할진대 아무리 學問의 自由·大學의 自治·大學社會의 自律이 民主社會의 基本理念이라 할지라도 이를 소리높여 부르짖을 體面이 없었으며 이 소리를 들어 줄 共感帶도 形成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연, 大學과 大學社會에는 他律이 浸透하게 되고 支援과 育成을 위해서라기보다 그릇된 事例로 인하여 形成된 固定觀念을 바탕으로 하여 規制의 뜻을 먼 統制와 調整이 大學을 支配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事構은 달라졌습니다.

1950年代에 비해 60倍의 規模로 成長한 大學은 이제 손을 잡아 주지 않고도 옳은 方向으로 걸어갈 수 있는 힘과 分辨을 가지게 되었고 비록 어려운 가운데서나마 스스로의 力量을 正當하게 發揮하는 것만으로도 正當한 目的을 追求할 수 있을 만한 潛在力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렇다 할 賦存資源도 없고 蓄積시켜온 技術도 없는 與件인데도 漢江邊의 奇蹟이라 일컬어진 經濟發展이 이룩된 그 裏面을 살펴보면서 지금 識者는 教育力에 그 原因을 찾고 있습니다. 放出된 教育받은 人力이 쌓이고 쌓여 그 重壓이 爆發點에 到達하였을 때 이 爆發에서 생긴 엄청난 에너지가 살아갈 길을 치달으면서 그 눈부신 國家發展·經濟發展의 奇蹟을

이루어 졌다는 생각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浪費로만 여겨지던 大學教育이 기실 國家發展의 原動力이었으며, 이것이 아니고서는 將來의 發展도 期待할 수 없다는 正論이 從來의 固定觀念을 뒤엎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大學人들도 大學이 겪은 苦難의 歷史를 멋뻐 자랑하면서 올바른 待遇를 받게 될 時期를 맞게 되었고 나라와 大學의 더한 發展을 위해 大學의 自治와 自律性을 主張할 體面을 차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大學教育協議會는 이러한 歷史的 社會的 要請이 交叉하는 데서 誕生하였습니다.

근 40년을 敎導的 行政의 保護와 統制 아래 受動的으로 이끌려 가기만 하던 大學社會가 自己問題를 自己力量으로 解決하고 自己行爲의 責任을 自己가 지는 가운데 個性과 多樣性을 兼備한 力動的 進取的 大學社會로 一大轉換하여야겠다는 것이 大學教育協議會가 쳐들은 旗幟인 것입니다.

大學教育行政은 진작 自律化했어야 했다는 見解가 있는 反面, 아직도 大學社會의 自律力量이 未及하다는 見解도 相當한 程度의 論據를 提示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 段階에서 自律化를 위한 整地作業이라도 해 두어야 될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異論의 餘地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곧 民主精神 具現으로의 接近이기 때문입니다.

## II. 設立以後의 概況

大學教育行政의 自律化와 政府·大學間의 架橋役을 맡을 어떤 機構가 必要하다는 論議는 일찌기 高等教育改革事業이 시작되던 1972年쯤부터 일어나고 있었습니 다마는 여러가지 事情으로 그 實現이 미루어져 왔었습니다.

그러던 차 마침 第5共和國이 出帆하면서 民主主義의 土着化를 國政指標의 第1義로 삼고, 社會 모든 分野의 自律力量을 伸長시키기 위하여 經濟秩序의 自律機能이 회복되도록 갖가지 施策을 펴는 한편 通行禁止를 撤廢하는 등 政策基調를 大幅 轉換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大學教育行政도 自律化되어야 한다는 論議가 再燃되고, 大學教育協議會의 設立問題가 具體化하게 된 것입니다.

82年 4月 2日, 全國大學總學長의 參集 아래 創立總會가 開催되기까지 먼저 準備委員會(委員長 權彝赫 서울大總長)가 結成되어 모든 節次를 밟았거니와, 特記할 만한 일은 이 機構가 생김으로써 將次 大小間에 權限을 넘겨주게 될 文教部가 도리어 그 設立을 積極的으로 돕고 指導해 주었다는 事實로서, 여기에서도 文教部가 大學教育行政에 있어 從前의 中央集權性·劃一性·統制性을 脫皮하려 努力하는 흔적을 엿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

創立總會에 이은 第1次 理事會에서 筆者가 常任理事 兼 事務總長으로 選任됨에 있어서도 이러한 時流와 政策의 흐름, 그리고 政府의 姿勢를 確認할 수 있었기에 크게 勇氣를 얻어 기꺼이 榮光으로 생각하면서 受諾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일단 發足은 하였으나 當初에는 議決機構만 結成되었을 뿐 執行機構로서의 事務組織이 없는 狀態여서 當時 筆者가 理事長으로 在職하고 있던 私學年金管理公團의 協助를 얻어 職員組織·事務室 마련 其他 제법 迅速하게 業務를 開始할 수 있었습니다.

이 機關의 目的, 性格과 任務 등이 定款上으로는 明示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草創期의 脆弱한 組織과 不實한 財政으로 定款上의 모든 일을 一時에 해낸다는 것은 不可能한 일이며 自體力量이 미치는 限界와 周邊與件이 許容하는 限界가 맞떨어지는 線에서 분수에 맞게 일을 치루어야 하는데 이 분수를 찾아낸다는 일부러가 그리 수월한 일이 아니어서 적지아니 困惑을 겪었습니다마는 그런대로 9個月間 발머등치듯 이루어 온 일을 報告삼아 列擧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各種 研究·協議·調整機構의 組織과 그 運營

첫째로 本協議會의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동안 세차례의 總會와 每月 定期的으로 열리는 理事會를 통하여 지난해와 올해의 事業計劃이나 豫算을 審議·調整하는 한편, 全國의 各大學이 當面하고 있는 行·財政上의 問題點과 그 解決

方案을 廣範하게 研究·協議함으로써 協議會 運營의 基本方案을 定立해 왔습니다.

둘째로는 그 下部組織으로 主要大學(主로 理事會에 參與하지 않는 大學)의 副總長이나 敎務處長 또는 學長級 敎授들을 中心으로 構成된 諮問委員會를 組織運營하면서 大學現場에 있어서의 敎·學上 懸案問題들을 收斂하여 이에 대한 意見을 綜合하고 그 對策을 마련하는데 腐心하여 왔으며,

세째로는 專門領域別로도 大學評價研究委員會, 大學財政研究委員會를 構成運營하여 大學敎育의 質向上을 위한 評價事業을 主管케 하고 아울러 大學財政의 現況分析과 그 確保方案에 대한 研究와 試案을 作成하여 이를 實行 또는 政府에 建議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機構들은 大學敎育의 方向定立을 위한 集團知의 創出이나 調整機關으로서의 中軸的 役割을 遂行하게 될 것입니다.

## 2. 外國의 類似機關과의 協力體制 確立

歐美先進社會에서는 오래전부터 大學間 協議機關이 設立運營되어 오면서 自律的인 大學評價와 大學間的 協力 및 政府財政支援의 代行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 創設된 本協議會로서도 이러한 機關과의 紐帶와 協力體制가 必要하다는 생각아래 一次的으로 英國의 UGC (University Grants Committee)나 美國의 COPA (The Council on Post-secondary Accreditation) 및 日本의 私立大學聯盟이나 協會등 主要國의 25個 類似機關에 韓國協議會의 創立을 알리면서 資料交換과 앞으로의 協力體制의 構築을 提議하여 好意的이고 肯定的인 反應을 얻은 바 있고, 美國의 洲立大學協會인 AASCU (American Association of State Colleges & Universities)의 提議에 따라 1984年度부터는 大學關係者들이 每年 相互 訪問하면서 高等教育에 관한 韓·美合同세미나를 開催하기로 合意한 바도 있습니다.

## 3. 大學評價事業의 推進

大學의 學事運營이나 行·財政面에 관한 評價는 70年代 初盤부터 文敎部의 高等教育改革事業의 一環으로 推進되었으며 그 동안에는 주로 實

驗大學에 대한 評價를 實施하여 大學敎育의 質의 水準을 向上시키는데 크게 寄與해 왔습니다. 또 1977年度에는 처음으로 大學院 運營評價를 實施하여 大學院 敎育의 強化를 위한 起點이 되었다는 것도 잘 아시는 事實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이 事業을 本協議會가 移管받아 事業規模를 擴張시켜서 大學運營綜合評價를 비롯하여 大學院評價·工科系大學評價·基礎科學系大學評價 및 特性化 工料大學의 運營診斷 등 各種 評價를 일제히 實施하였으며 그 評價結果를 文敎部에 中間報告하는 한편 目下 最終報告를 作成中에 있습니다. 이 報告가 우리 大學敎育의 向上發展을 위해 훌륭한 資料로 活用될 것을 믿어마지 않습니다.

## 4. 大學入試制度 改善을 위한 研究와 建議

지난 5月 文敎部로부터 現行入試制度 改善에 관한 研究를 委託받아 關係專門敎授들로 研究委員會를 構成하여 現行(1982學年度)入試制度全般에 관한 分析과 檢討를 한 바 있습니다. 그 研究結果를 文敎部에 報告하면서 몇가지 建議를 하였는데, 一次的으로 複數志願制를 單數志願制로 하는 것과 追加募集을 前後期銜後 同時에 하는 것 등의 建議가 採擇되어 1983學年度부터 實施하기에 이르렀고, 그와 前後期大學의 調整方案이나 入試制度의 圓滑을 圖謀하기 위한 몇가지 提案은 다른 事情이 생겨 保留된 채 앞으로의 檢討에 넘겨지고 있습니다. 大學入試制度는 高校 및 大學敎育의 內質이나 學生, 學父母의 立場 및 敎育의 本質의 側面에서도 繼續的으로 研究·改善되어야 할 問題이므로 本協議會에서도 文敎部와의 協助아래 大學當事者들의 意見을 收斂해 가면서 持續的인 研究와 協議를 해 갈 작정입니다.

## 5. 各種研究事業의 推進

大學이 當面하고 있는 問題 중에는 보다 深度 있는 研究를 거쳐야 할 政策的 課題가 많으나 草創期의 形便上 지난해에는 우선, 우리나라 大學敎育의 方向과 課題, 敎授의 授業評價를 위한 理論과 實際의 可能性의 探索 및 私學財政의 健全化를 위한 分析·研究 등을 文敎部 支援이나 自

體財源으로 推進하였습니다. 研究結果는 곧 報告로 發刊할 豫定입니다마는 政府나 各大學에 서의 教育改善을 위한 좋은 資料와 準據로 活用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6. 會誌의 發刊

우리나라 各大學이 學內的으로는 放送이나 大學新聞 뉴스레터 등 많은 情報媒體들이 있어 상당히 높은 水準의 저널리즘을 享有하고 있지만 아직 大學相互間의 意思疎通이나 情報交換을 맡을 傳達體制(Delivery System)를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發展의 意慾에 充滿되어 있는 各會員大學들에게 學事運營을 비롯한 大學教育의 理論과 實際에 관한 情報를 傳達하고 先導的 事例를 紹介하며 뛰어난 經綸을 서로 나누어 갖게 하자면 이를 위한 傳達媒體가 眞正히 必要할 것이며 또 이러한 役割의 遂行은 大學教育協議會의 固有業務이기도 합니다.

發足初期에 있는 協議會가 定期的 刊行물을 내기에는 그 豫算이나 人力으로 보아 힘에 겨운 일이지는 하지만 여러가지 與件의 不備를 무릅쓰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會誌 創刊號의 發刊 配布를 強行하게 되었습니다.

이 會誌는 當分間은 隔月刊이 不可避하지만 豫算이 確保되는 대로 可及的 빠른 時日안에 月刊化하여 2,000部 정도씩 發刊, 各會員大學과 關係機關에 無料로 配布할 豫定이며 各大學에 寄시는 훌륭한 資源人士들의 도움으로 우리나라 大學社會에서 寵愛를 받는 水準 높은 情報媒體로 發展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 7. 資料室 運營을 위한 準備

아직은 外國으로부터의 各種資料가 一部分 到着되어 이를 會員大學에 普及하지 못한 채 分類 整理中에 있으나 앞으로 大學教育에 관계되는 各種 資料나 購得하기 어려운 外國의 學術雜誌 및 先導的 國內外 大學의 各種事例들을 發掘, 確保하여 各會員大學에 供給하는 System을 確立하고자 지금 準備에 분주합니다.

### 8. 其他

위에서 列擧한 個別的 事業 외에도 지난해 동안 무려 58회에 걸치는 各種會議과 懇談會를 定期 또는 隨時로 召集하여 廣範한 討議와 意見交換을 하였고 그 結果에 대한 建議를 한 바도 있어 各會員大學의 懸案問題와 各種情報를 隨時로 蒐集·分配하는 시스템이 漸次 形成되어 가고 있는 중이라 하겠습니다.

## Ⅲ. 새해의 構想

協議會創設을 準備할 때부터 그 定礎期를 82년부터 3個年으로 잡고 本格的인 機能은 말라도 84年 以後가 되어야 發揮될 수 있다는 構想이 基本前提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83年이 創設第2次年度라고는 하나 業務의 大宗은 82年度의 延長으로서의 準備와 體制開發 내지 運營基盤造成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今年에는 財政上 相當額의 政府補助金을 期待해 왔습니다마는 0 base의 査定原則을 適用하던 때라 新規 增額要因에 대해 寬大할 리가 없었고 期持의 串에도 못 미치는 水準에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이마저 文教部의 百方努力과 生소한 新規事業에 대한 經濟企劃院 當局者의 理解가 없었던들 補助 自體가 不認될 뻔 했던 것입니다.

이런 事情으로 새해의 構想이라 해야 내건스럽게 내어놓을 것도 없이 産苦가 繼續되겠습니다마는 이 어려움 속에서나마 주어진 與件과 許容된 財源의 效用을 極大化하여 새로이 設計해 본 事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各大學 管理職 職員에 대한 再教育 프로그램의 開發과 그 實行

大學의 量的 膨脹에 따라 各大學에 行·財政面에 從事하는 事務職, 管理職 職員들의 業務量이 擴充되었고 그 業務의 水準도 날로 專門化되어 가는 傾向입니다.

教授와 研究에 從事하는 教授要員들에게는 學問研究와 海外派遣研修, 세미나, 學會活動 등을 통하여 새로운 知識이나 情報에 接할 수 있는 機

습이 많지만 管理職 職員들은 大學間의 交流機會가 乏缺하고, 日常的 業務負擔 속에서 自己啓發이나 業務能力的 向上을 위한 再教育機會를 전혀 갖지 못하고 있는 實情입니다.

따라서 그분들이 새로운 行·財政的 需要의 增加와 이를 위한 業務의 科學化, 電算化 등에 迅速히 對處·適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분들 自身の 輿論이기도 합니다.

이 問題를 解決하기 위하여 部分的으로나마 國公私立大學 管理職 職員들의 資質과 業務能力 向上을 위한 再教育計劃을 세워 먼저 프로그램을 開發하고, 教材를 만들어 適切한 時期에 約 1週間 정도씩의 再教育을 實施할 豫定입니다.

## 2. 大學評價事業의 體系化

지금까지의 各種大學評價는 豫算·人力의 制約으로 各大學의 運營에 관한 物量的 測定이나 外形的 評價에 그침으로써 各大學에 教育改善을 위한 刺戟과 動機賦與를 한 바 있다고는 하나, 先進外國에서 實施되고 있는 大學評價처럼 權威 있고 實效性있는 評價라고 하기 어려웠던 것이 事實입니다.

새해부터는 그동안의 各種 評價를 集約化하여 보다 많은 專門家의 參與아래 大學運營全般은 물론 大學院이나 各學科에서 開設하고 있는 教育 프로그램과 教材·教授要目(Syllabus), 授業의 質과 內容 및 教育改革事業에 대한 實績과 展望 등을 一定한 準據(Criteria)에 비추어 精密分析하는 實質的 評價의 方法으로 轉換해 가야 한다고 봅니다. 또 方法面에 있어서도 一方的, 指示的 評價보다는 適正한 評價道具를 開發하여 이를 中心으로 問題提起와 協議, 討論 등을 통해 合議와 示唆點을 찾아낼 수 있는 發展的 方法으로 誘導되어야 하며, 評價結果는 보다 權威가 있고 實效性있게 活用되어야 할 것입니다. 具體的인 評價計劃에 관하여는 評價研究委員會의 協議나 文教部와의 協議를 거쳐 빠른 時日內에 各大學에 通報하고자 합니다.

## 3. 海外交流의 擴大와 資料室 運營의 強化

大學關係者들의 活潑한 國際交流와 情報交換은 우리나라 大學에 새로운 活力과 生氣를 불어

넣을 수 있는 方便이 될 것입니다.

또한 外國에서는 보다 進歩된 大學間 協議機構가 大學의 運營與件 改善과 教育水準의 向上을 위해 廣範한 活動을 展開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機關들과의 協力이나 連繫體制는 우리나라 大學教育의 向上과 發展을 위해 必須的인 事業이라 생각됩니다.

지난해에 構築해 온 協力體制를 더욱 擴充強化하여 새해부터는 이러한 外國의 大學協議機構와의 資料交換과 相互訪問 또는 協調活動을 보다 活潑히 推進하면서 國內에서 購得하기 어려운 學術雜誌나 文獻 및 教育資料를 收合, 分類하여 各會員大學에 隨時 配布할 수 있도록 資料室 運營에 重點을 둘 計劃입니다.

## 4. 大學間 各種協議會의 活動支援

全國 各大學에는 國立大學總長協議會·私立單科大學長協議會, 教務處·課長協議會, 學生處·課長協議會, 事務處·課長協議會 및 新聞指導教授協議會 등 多様한 自生的 모임들이 相互親睦과 協力 및 情報交換을 위한 架橋가 되어 많은 建設的 協議와 活動을 벌임으로써 大學의 勉學與件 改善에 寄與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本協議會에서는 이런 各種 協議體와도 連繫를 갖고 行事나 事業에 最大限 支援과 奉仕를 함으로써 各大學의 教·學改善에 中軸的 役割을 맡아 나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5. 政策研究事業

지금까지도 大學問題에 관하여 새 政策을 樹立하거나 既存政策을 修正할 경우 많은 專門家와 關係人士가 參與하여 慎重한 檢討가 가해진 다음 成案되어 오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새 政策의 必要性을 發見하고 政策課題를 研究하는 與否를 決定하는 主體는 文教部, 즉 政府였지 政府 밖에서 政府에 대하여 大學政策을 建議하거나 研究된 資料를 提供하는 制度的 裝置는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매스컴의 主張이나 專門家의 意見發表 등이 政策立案에 動機를 賦與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政策提示 그 自體라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大學政策의 內容에 政府側의

要請만이 强하게 反映되는 반면 大學側의 要請은 輕視되어 一方通行의인 傾向을 나타낼 可能性도 없지 않았던 것입니다.

本協議會가 제대로 機能을 살리자면 이러한 傾向을 바로잡는 制度的 裝置로서의 役割을 맡아야 한다는 생각아래, 앞으로 最善을 다해 大學社會의 진정한 要請이 反映된 政策을 研究開發하여 果敢하게 政府에 建議할 計劃입니다.

#### 6. 大學社會權益의 代辯

各種 經濟團體, 文化團體, 社會團體가 각기 그 構成員의 權益을 伸張하기 위하여 涉外活動을 展開하고 있듯이 어떤 社會, 어떤 集團이든 그 集團의 意思를 代辯하는 機構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大學社會만은 여지껏 이 代辯者를 가지지 못한 채 各大學別로 散發의이며 無力하게 意思를 表示하거나 權益을 主張해 온 데 不過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일이었음이 分明합니다.

本協議會는 이 方面의 活動 또한 主任務의 하나로 삼아 社會 各界各層에 大學社會全體의 意思를 傳達하고 權益을 保護 伸張하는데 注力할 計劃입니다.

특히 今年에는 지난해부터 擧論되어온 各種稅制上의 問題點과 金融面의 問題를 提起하여 要路에 折衝하는 일이 當面하고 있으며 大學에 대한 教育投資의 擴大, 其他 長期的으로 對處하여야 할 課題들에 대해서도 미리 活動의 方向을 그려 놓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Ⅳ. 맺는 말

以上으로 設立에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業務들을 概略의으로 敍述했습니다마는 敍述 중에도 문득 筆者의 腦裏를 스치는 疑懼가 있음

니다.

과연 지금하고 있는 일과, 하고자 하는 일이 어느 정도 大學人들의 期待水準에 미치고 있는가?

大學人들이 이 協議會를 위해 寄與해 주신 만큼 이 協議會가 大學人들에게 돌려드린 그 무엇이 있는가? 筆者 自身으로서는 결코 肯定的인 答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굳이 辯明을 늘어 놓는다면 아직은 이 協議會가 收穫을 건물만큼 자라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果樹를 가꾸듯 온갖 精誠과 힘을 기울여 긴 歲月을 기다린 끝에야 알찬 열매를 따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알서도 말했듯 大學教育行政이 部分的으로 自律協議體로 넘어 온다는 것은 40年間 一貫되어 온 方向을 바꾸는 一大 轉換이며 그동안의 慣性을 생각하면 性急한 旋回가 失敗를 自招할 수 있다는 것을 念頭에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當否者間에 있어 業務와 權限을 넘기는 측의 決意도 決意거니와 받는 측의 受容態勢와 받은 후의 處理能力도 1~2年の 期間 안에 完備되리라 생각할 수 없으며 周邊에 얽혀있는 認識上, 制度上, 事實上의 關係도 相當한 歲月을 거쳐야만 轉換한 方向을 새 秩序로 承認하게 될 것입니다. 慎重이 지나쳐 協議會의 存在를 有名無實하게 만들어 버려서도 안되겠지만 功을 서둘러 協議會의 앞길을 어렵게 하는 것은 더욱 안될 일이라 깨달으면서 筆者는, 모든 大學人들에게 이 協議會가 자라나 푸짐한 열매를 맺기까지 오히려 報答없는 協力과 參與를 呼訴하여 서슴치 않는 것입니다.

끝으로 本協議會 設立에서 오늘까지 物心兩面으로 도와주신 總·學長님들과 文教部長官을 비롯한 關係當局者 그리고 特別 犧牲的인 奉仕를 아끼지 않으신 協議會所屬 各委員會 委員님들에게 깊은 謝意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